

03

H

현대중공업그룹 웹진 매거진 H  
NO.048

# IN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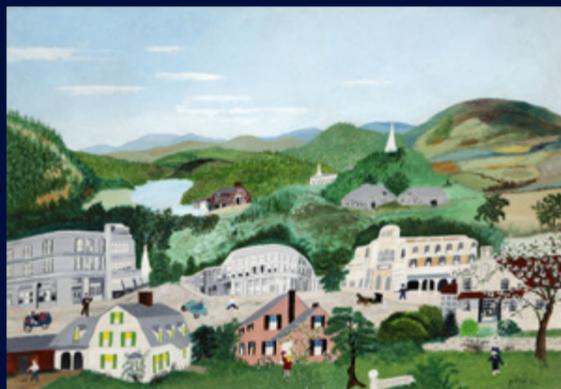
<b>Feature</b>	현대중공업그룹 창립 50주년 기획 - 반세기 도전의 역사로 새로운 항로를 열다 外	<b>03</b>
<b>People</b>	AI 기술로 현대중공업그룹의 미래를 만들다 - 한국조선해양 AI솔루션연구실	<b>12</b>
<b>News</b>	그룹사 주요 소식	<b>15</b>
<b>Heritage</b>	현대중공업, 세계 최초 스마트 선박 인도 - 2011.3	<b>19</b>
<b>Special</b>	톡톡 튀는 디지털 혁신으로 제조공정 레벨 업! - 제2회 현대중공업그룹 빅데이터·AI 대학생 경진대회	<b>21</b>

# STORY

<b>Trend</b>	“때로는 혼자도 괜찮아”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여행, 혼행	<b>25</b>
<b>Health</b>	어? 못보던 점이 생겼네... 혹시 피부암?	<b>28</b>
<b>Culture</b>	요알못들을 위해 K사우가 간대! - 닭가슴살 레몬크림파스타 편	<b>30</b>
<b>Story +</b>	사우의 글 - 내 인생의 영화 잡학사전 - 물리학과 상상력이 교차해 만들어가는 ‘시간여행’ 이야기	<b>32</b> <b>33</b>
<b>Hstagram</b>	나의 입사 후 추억을 소개합니다	<b>34</b>
<b>Quiz</b>	3월호 퀴즈	<b>35</b>



웹진 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더 보기 더 많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달의 풍경 Bennington 1945년 | 52.6 x 37.6cm

그림 그랜마 모지스 1860~1961년 | 늦은 나이에 활동을 시작, 계절이 담긴 풍경화로 사랑받은 미국의 국민화가

# INSIDE

Feature

People

News

Heritage

Special



현대중공업그룹 창립 50주년 기획

# 반세기 도전의 역사로 새로운 항로를 열다

글 웹진편집실

현대중공업이 울산에 자리를 잡고 첫 발을 내딛었던 1970년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위해 막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개발도상국이었다. 특히 중화학 공업은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그로부터 불과 50년이 지난 2021년,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2,057조 4,000억 원,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5,168달러를 기록하며 글로벌 10대 경제강국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놀라운 경제발전의 중심에는 국가와 함께 성장해온 기업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기간산업 분야에서 40년간 글로벌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국가대표 기업은 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제조업을 대표해왔다. 우리 그룹의 핵심사업인 조선, 에너지, 건설기계는 모두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이다. 고용 인원이 많고 부가가치의 대부분이 국내로 들어온다. 호황기에는 국가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역으로 불황이 오면 충격 역시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경영 환경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는 이른바 ‘변화의 시대’에는 산업을 선도하는 대표기업들의 강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우리가 잘되는 것이 나라가 잘되는 것이고, 나라가 잘되는 것이 우리가 잘될 수 있는 길”이라는 정주영 창업자의 말씀이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유효한 이유다.

## 변화의 물결 속 현대중공업 50년

1970년 61.9세였던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50년이 지난 2020년 83.5세로 20년 이상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머지 않은 미래에 100세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기업의 평균 수명은 줄고 있다. 기존의 경영방식으로 변화하는 경영환경을 따라 잡기엔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1960년대 약 60년이었던 미국 S&P 500 기업의 평균 수명은 오늘날 18년에 불과하다.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S&P 500 기업들도 20년 이상 동일한 지위를 유지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친환경,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의 트렌드는 이런 경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들 기술에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테크 기업들은 미래 성과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지만, 전통 제조업 기업들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우수인재들로부터도 외면 받고 있다. 전통 제조업 기업들은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과거의 지위를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은 극히 드문 사례로 꼽힌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는 변신을 통해 글로벌 톱 티어 자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892년 설립된 GE는 1896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새로 구성될 때 이름을 올린 12개 회사 가운데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초기에는 전자기기를 주로 생산했지만 오랜 기간 구조조정을 거치며 에너지, 인프라, 기술, 항공,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했다. 2010년대부터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으로의 변신을 시도하며 실리콘밸리에 GE 디지털 본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SK그룹 등 국내 기업도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맞춰 주력 사업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한민국 주력 산업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또 전자정보통신산업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기업들도 부침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들 그룹은 주력 제품을 설탕, 비누, 의류 등에서 반도체, 2차 전지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바뀌가며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더 키워가고 있다.

우리 현대중공업그룹도 조선·해양사업 외에 에너지, 건설기계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끊임없이 기업가치를 높여왔다.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 회사의 출발점인 조선사업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주력 사업으로 유지하며 세계 1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

##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 동시에...

### 조선사(史) 큰 획

시작부터 극적이었다. 1970년대는 '중화학입국' 시대였다.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해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국가적 염원이었다. 정주영 창업자는 현대건설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거북선, 백사장 사진, '5만분의 1 지도'로 상징되는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조선소 건설을 위한 차관 도입과 유조선 2척 수주 계약을 성공시켰다. 그리고 1972년 3월 23일 오후 2시, 울산 미포만 백사장장에서 '현대울산조선소 기공식'을 가졌다. 우리 그룹 모회사인

현대중공업의 창립일이자 세계를 호령할 'K-조선'의 시작이었다.



▲ 1972년 3월 23일 현대울산조선소 기공식



▲ 1호선 건조 당시 울산조선소 야드 모습

정주영 창업자는 조선소와 배를 동시에 짓는 사상 초유의 일을 벌였다. 조선소 건설에 착수하자마자 기능공 훈련소를 지어서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한편, 매일 2,200명의 작업 인원을 현장에 투입했다. 수주 받은 배 2척을 만들면서 동시에 방파제를 쌓고, 안벽을 만들고, 도크를 뚫으며, 14만 평의 공장을 지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현대중공업은

1974년 3월 1호 선박 '애틀랜틱 배런'호를 진수하고 3개월 후엔 조선소를 준공했다. 기공식을 한 지 2년 3개월 만이었다. 우리는 최단 시일에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동시에 유조선 2척을 건조해낸 기록으로 세계 조선사에 남게 되었다.



▲ 1974년 6월 현대중공업의 1호 선박 애틀랜틱 배런호 명명식

성장 역사도 드라마틱하다. 1973년과 1978년 1, 2차 오일 쇼크로 인해 세계 해운-조선 경기가 급격히 냉각됐고, 현대중공업도 위기에 봉착했다. 막 걸음마를 시작한 시기였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뚝박질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현대중공업은 VLCC 등 대형선박 위주였던 건조 선종을 다목적 화물선, 벌크선, 목재운반선 등으로 다변화했다. 1975년 현대미포조선 설립하며 선박 수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했고, 이듬해 핵심기자재인 선박엔진 생산을 위한 엔진기계 사업본부를 발족하는 등 과감한 신규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오일쇼크의 여파가 지나간 1983년 현대중공업은 처음 조선업 세계 1위 자리에 올랐다. 1985년 일본의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는 1월 특

집호에서 현대중공업이 1983년 건조량 기준으로 조선업계 세계 1위에 올라섰다고 보도했다. 조선소 기공식을 가진 지 불과 11년만이었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부동의 1위를 유지하며 세계 조선사에 '최초', '최대'의 역사를 잇달아 써 내려간다. 세계 최대 화물선(1986년, 36만 5,000톤급 철광석 운반선) 인도를 시작으로 세계 최대 프로펠러 제작(1992년, 8만 2,456톤), 세계 첫 육상 건조 선박 진수(2004년), 세계 최초 1만 TEU급 컨테이너선 건조(2005년), 세계 최초 T자형 도크 완공(2009년, 100만 톤급) 등 현대중공업은 제품은 물론 공법에서도 세계 조선업계를 선도해왔다.



▲ 현대중공업의 조선업계 1위를 처음 보도한 일본의 다이아몬드지

1980년대까지 한국 조선사들에게 굳게 닫혀있었던 LNG운반선 시장의 빗장을 처음 연 것 역시 현대중공업이었다. 현대중공업은 1994년 국내 최초 LNG운반선인 '현대유토피아'호를 인도하고 1999년 첫 해외 수주에 성공하며 글로벌 LNG운반선 시장에 데뷔했다. 현재 LNG운반선은 한국 조

선업의 효자 제품으로 꼽힌다.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중국 조선사가 잠시 시장을 잠식하기도 했지만, 앞선 기술력으로 격차를 벌리며 전 세계 해운사가 다시 K-조선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 현대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건조한 LNG운반선 '현대유토피아'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규제와 전 세계 LNG 물동량 증가의 영향으로 향후 LNG운반선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강화는 대형 컨테이너운반선 등 일반 상선까지 LNG추진시스템 적용을 확대하게 만들기도 됐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우리 그룹 조선계열사들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LNG선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LNG선박의 핵심은 극저온에서 가스를 액화시켜 운송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LNG의 뒤를 이을 친환경 청정에너지로 꼽히는 액화수소 운송에도 적용할 수 있다. K-조선의 현재이자 미래를 열어줄 기술인 셈이다.

## 거센 파고를 넘어

### 글로벌 종합중공업그룹으로 영역 확대

2000년대는 현대중공업이 글로벌 종합중공업그룹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한 시기다. 2002년 삼호중공업을 인수한 현대중공업그룹은 2010년 현대오일뱅크를 가족으로 맞이하며 에너지·화학 분야로도 사업영역을 넓혔다.

현대중공업그룹 편입 이후 현대오일뱅크는 제2고도화설비를 준공하며 본업인 정유업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확보했다. 이후 현대케미칼, 현대코스모, 현대셀베이스 오일, 현대오씨아이 등 계열사를 잇따라 설립, 석유화학, 제철화학, 윤활유 사업에 진출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 현대오일뱅크의 제2고도화설비

하지만 2010년대는 현대중공업에 있어 뼈아픈 시련의 시기였다. 2000년대 중반까지 호황을 달리던 세계 조선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박 발주량이 급격히 줄어들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조선사업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무리한 수주로 해양사업 역시 큰 폭의 적자를 냈다. 더

불어 신흥국의 건설경기까지 일제히 하락하면서 건설기계 부문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 진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금융 사업은 기대만큼의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현대중공업그룹은 2014년과 201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만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구조를 견고히 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각 사업부의 분할을 단행한다. 2016년 12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현대에너지솔루션, 엔지니어링서비스 분야의 현대글로벌서비스를 시작으로, 전기전자시스템 분야의 현대일렉트릭, 건설장비 분야의 현대건설기계, 로봇 분야의 현대로보틱스 등을 분사하며 그룹 구조를 재편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각 사업 특성에 맞는 경영전략을 펼침으로써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했다. 2016년 현대중공업의 경영방침 'Change Together'는 변화를 향한 의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2017년에는 호텔현대, 하이투자증권 등 비핵심사업을 매각하고 유휴 부동산 등을 정리하며 재무구조 개선을 꾀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 끝에 경영을 안정화시킨 현대중공업은 그룹 체계 완성에 나선다. 2017년 사업분할을 완료하며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데 이어, 2019년에는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해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 '현대중공업'으로 분리했다. 이에 한국조선해양은 조선 계열사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주사이자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R&D 및 엔지니어링 전문회사로 거듭났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021년 8월 국내 1위 건설기계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통해 조선·해양, 에너지, 건설기계의 3대 사업축을 마침내 완성한다. 새로 출범한 중간지주사

현대제뉴인 산하에 현대건설기계와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두면서 2025년 글로벌 건설기계 Top 5 도약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지주는 조선사업에서 발생한 일회성 비용에도 불구하고, 매출 28조 1,587억 원, 영업이익 1조 854억 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 세계 1위 'Shipbuilder'를 넘어 'Future Builder'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올해, 현대중공업그룹은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미래 시장을 선도할 현대중공업그룹의 혁신 기술이 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2는 우리 그룹이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그곳에서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사장은 'Future Builder'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 CES 2022 프레스콘퍼런스에서 발표중인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사장

정기선 사장은 국내외 기자단을 대상으로 열린 프레스콘퍼런스에서 “세계 경제성장에 토대를 구축해 온 현대중공업 그룹의 지난 50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다가올 50년은 세계 최고의 'Future Builder'가 돼 더 지속가능하고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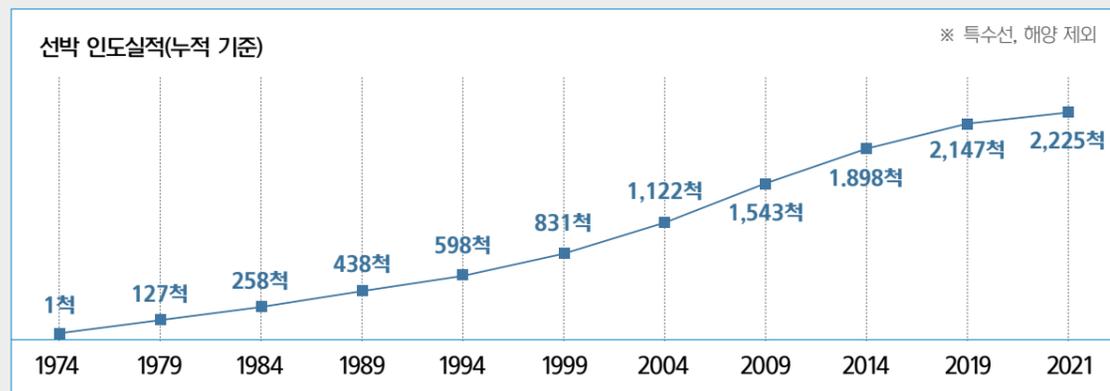
현대중공업그룹 창립 50주년 기획

# 숫자가 보여주는 우리의 역사

글 현대중공업 문화홍보팀

현대중공업의 전신은 1969년 초 신설된 '조선사업추진팀'이다. 이들은 현대건설 기획실 등에서 차출된 12명의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1970년 3월 '조선사업부'로 정식 발족했다. 조선사업부는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차관 도입, 부지 선정, 조선소 건설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최초 조선소의 시설 규모를 적당 최대 50만 톤급으로, 부지 51만 8,512제곱미터, 건물 12만 4,334제곱미터, 드라이도크 1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면서 여러 차례 조선사업계획이 수정되며, 조선소는 100만 톤급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됐다. 이를 위해 덤프트럭 105대, 불도저 15대, 페이로더 20대 등 당시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장비의 3분의 2가 울산 현대조선소를 건설하는데 사용됐다. 이처럼 숫자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준다. 그룹 창립 50주년의 역사를 대변할 만한 흥미로운 숫자들을 소개한다.

## 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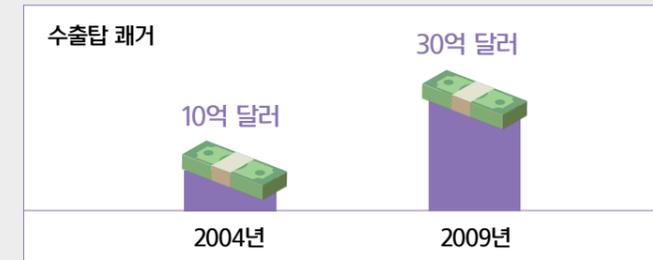
- H273호선(17만2천DWT급 벌크캐리어) 건조 착수에서 인도까지 **최단 기간(6개월)** 소요
- **폴리아트크레인(말뚝의 눈물) 매입가 1달러**
- 2015년 5월 **선박 인도 누적 2천척 달성**, 이 가운데 **컨테이너선 총 538척 전체의 29%**
- 국가대표 수출 기업,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80%**
- 1983년 H198넬바나(7만1천톤급 살물선)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39년 연속 총 81척 선박이 '세계우수선박'에 선정**
- 첫 생산한 지 15년만에 **힘센엔진 생산 누계 1만대 돌파**(2001.4~2016.3)

## 현대미포조선



- 신조 사업 진출 **20년만에 선박 인도 1천척 달성**
- 미포 탱커 **전세계 37개국 144개사 800척 인도**
- 2003년 석유화학제품운반선 시작으로 2021년까지 **세계일류상품 15종**
- 2001년 나이트호(해저케이블 부설선)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21년 연속 총 57척의 선박이 '세계우수선박'에 선정**

## 현대삼호중공업



- 2003년 업계 **최단 기간 1천만 DWT 선박 건조 기록 달성**
- 2015년 **최단 기간 선박 건조 500척 기록 달성**
- 2008년~2020년 **선박 100척 육상건조 기록 달성**
- 육상건조 방식 현재까지 **전체 매출의 40%**를 담당
- 2007년 원유운반선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시작으로 현재 **세계일류상품 6종 보유**
- 2004년 S196 MSC 스텔라(4천900TEU급 컨테이너선)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35척의 선박이 '세계우수선박'에 선정**

현대중공업

### 선주사별 건조 실적

- 92척**  
A.P. MOLLER-MAERSK / 6,854,033GT
- 48척**  
OSG / 3,536,275GT
- 32척**  
HAPAG-LLOYD / 3,307,376GT

### 국적별 건조 실적

(총 52개국 합계: 158,020,047GT)

- 27,086,441GT**  
그리스 / 328척
- 22,016,356GT**  
대한민국 / 334척
- 16,263,895GT**  
독일 / 236척

### 선형별 건조 실적

- 50,003,920GT**  
컨테이너운반선 / 645척
- 30,148,485GT**  
유조선(VLCC) / 194척
- 19,049,965GT**  
벌크캐리어(B/C) / 361척

# 1970

- 1971 09 조선소 건설 차관단 구성
- 1972 02 초대형 유조선 2척 계약 성사(그리스 리바노스)  
03 조선소 건설 기공식
- 1974 06 조선소 준공 및 1, 2호선 명명  
11 1억불 수출의 탑 수상
- 1975 04 (주)현대미포조선소 설립(자본금 12억 원)  
07 현대미포조선 조업 개시
- 1976 03 아세아상선(現 HMM) 설립  
07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 공사계약
- 1977 02 중전기사업부 발족(現 현대일렉트릭)  
07 아산사회복지재단 설립
- 1978 02 현대중공업(주)로 사명 변경  
12 현대미포조선 수리선 전용 3도크(15만DWT) 준공



# 1990

- 1991 09 선박 3,000만DWT (누계 477척) 인도  
LNG선 건조공장 준공 및 국내 최초 LNG선 착공
- 10 현대미포조선 수리개조선 5,000척 달성
- 1992 11 엔진 생산 1천만마력 달성, 20억 불 수출의 탑 수상
- 1994 02 (주)현대미포조선으로 법인명 변경  
06 국내 최초 LNG 1호선 인도  
10 선박 4,000만DWT 인도(누계 566척)
- 1995 10 현대미포조선 총 수리척수 6,000척 달성
- 1996 01 조선 2야드 완공
- 1997 03 선박 5,000만DWT 인도(누계 671척)
- 1998 01 현대호랑이축구단 인수  
06 현대예술관 개관
- 1999 04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동부캠퍼스 기공  
현대-비나신조선(HVS) 준공  
10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위탁경영 개시  
11 한국중공업(주)에 발전설비부문 영업 양도  
12 30억 불 수출의 탑 수상, 현대미포조선 3억 불 수출의 탑 수상



# 1980

- 1980 06 현대미포조선 수리개조선 1,000척 달성  
12 국내 최초 한국형 호위함(울산함) 인도
- 1982 07 플랜트사업본부에서 건설장비사업본부 신설  
10 현대부속병원 '해성병원' 개칭  
11 현대미포조선 제2공장(現 본사, 現 울산대학병원 도크 4기) 준공
- 1983 07 엔진생산 100만마력 달성  
11 10억 불 수출의 탑 수상  
12 현대미포조선 기업공개 및 상장
- 1984 03 선박 1,000만DWT(누계 231척) 인도  
06 현대미포조선 수리개조선 2,000척 달성
- 1985 01 조선 분야 세계 1위 선정(일본 『다이아몬드』 지)
- 1988 07 현대로보트산업(주) (現 현대로보틱스) 설립  
10 선박 2,000만DWT 인도(누계 389척)
- 1989 09 현대중장비산업(주) 설립(現 현대건설기계)

# 2000

- 2000 09 국내 최초 디젤엔진 모델 '힘센엔진' 개발
- 2001 03 정주영 창업자 타계
- 2002 02 계열분리, 현대중공업그룹 출범  
05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그룹사로 편입
- 2003 01 해양설비 육상 총조립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에 선정
- 2004 10 세계 첫 육상 건조 선박 진수
- 2005 03 현대미포조선 신조(新造) 사업 전면 전환
- 2007 05 7,600톤 급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진수  
11 100억 불 수출의 탑 수상
- 2008 05 군산조선소 기공
- 2009 01 세계 최초 T자형 도크(100만 톤급) 완공  
06. 나로우주센터 준공(발사대와 발사장 주요 공사 수행)  
11 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30억 불 수출의 탑  
현대중공업 150억 불 수출의 탑 수상





# 2010

- 2010 01 현대미포조선 선박 건조 500척 기록 달성
- 03 군산조선소-풍력발전기공장 준공
- 08 현대오일뱅크 인수
- 09 세계 최초 대형엔진 생산 누계 1억 마력 돌파
- 2011 02 함센엔진 생산 5,000대 달성
- 03 세계 최초 '스마트십' 건조
- 09 중앙기술원 종합연구동 준공
- 10 아산나눔재단 공식 출범
- 2012 03 세계 최초 선박 인도 1억GT 달성
- 11 세계 최초 선박용 DF엔진 패키지 개발
- 2013 04 함센엔진 내구성 시험장 완공
- 2014 07 1,800톤 급 잠수함 윤봉길함 진수
- 11 세계 최대 규모 컨테이너선(1만 9,000TEU급) 명명
- 2015 01 현대삼호중공업 선박 건조 500척 기록 달성
- 02 골리앗 FPSO 인도, 국내 최대 해상크레인 HD10000 준공
- 05 조선업계 최초 선박 2,000척 인도 달성
- 06 세계 최초 대형엔진 1억 5,000만 마력 생산



# 2020

- 2020 01 현대삼호중공업 육상이동공법으로 '선박 100척 건조'
- 현대비나신조선(HVS) '현대베트남조선'으로 사명 변경
- 03 현대삼호중공업 국내 최초 LNG 추진 컨테이너선 건조
- 04 ITER 진공용기 세계 최초 제작
- 06 현대삼호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 11만 4,000톤 급 원유운반선 인도
- 07 현대미포조선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1척 건조계약 체결
- 09 현대로보틱스 협동로봇 1호기 출하
- 10 4천500톤급 훈련함 '한산도함' 인도
- 11 현대일렉트릭 '대형엔진 일체형 축(軸) 발전기' 개발
- 현대미포조선 평형수 무배출 친환경 컨테이너선 개발
- 현대건설기계 '기술혁신센터' 준공
- 12 현대삼호중공업 세계 첫 'LNG 추진 벌크선' 건조 성공
- 울산현대축구단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 2021 01 단일 크레인 국내 최대 중량인 킹스키 톱사이드 모듈 탑재
- 02 현대미포조선 첫 LNG운반선 인도
- 03 현대중공업그룹 '수소드림 2030 로드맵' 발표
- 현대삼호중공업 '수중방사소음규정' 인증 획득

- 2015 11 사우디 아람코(ARAMCO)사와 전략적 협력 MOU 체결
- 정주영 창업자 탄신 100주년
- 2016 03 함센엔진 생산 누계 1만대 달성
- 04 현대미포조선 세계 최초 메탄올 이종연료 추진 PC선 인도
- 08 현대중공업MOS(주) 출범
- 11 6개 독립회사로 사업분리 의결
- 12 현대글로벌서비스(주) 출범,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주) 출범
- 2017 02 프로펠러 생산 누계 5,000호기 돌파
- 04 현대일렉트릭(주), 현대건설기계(주), 현대로보틱스(주) 출범
- 11 V타입형 이종연료 함센엔진(H35DFV) 첫 호기 생산
- 51.5MWh급 ESS센터 준공
- 2018 02 슈웨이크 화력발전소 공사완공증명서(PAC) 획득
- 05 현대미포조선 선박 건조 1,000척 기록 달성
- 08 현대중공업지주(주) 공식 출범
- 12 국내 최대 통합안전교육센터 개소
- 2019 01 현대글로벌서비스 조선업계 최초 스마트십 '디지털 관제센터' 구축
- 04 뉴질랜드 2만 6,000톤 급 군수지원함 진수
- 09 사우디 IMI사와 초대형 유조선(VLCC) 도면 라이선스 계약



- 05 그린수소 생산 실증설비 설치 MOU
- 06 아비커스 국내 최초 선박 완전 자율운항 성공
- 07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선언 선포
- 현대제뉴인 출범
- 현대글로벌서비스 글로벌디지털센터 개소
- 08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 10 현대미포조선 국내 첫 LNG 추진 로로선 인도
- 현대삼호중공업 수평자동용접 공법 세계 첫 LPG선 적용
- 이종연료 함센엔진 예인선 시장 진출
- 11 누리호 발사대시스템 제작 및 구축
- 그룹 ESG 경영 비전 선포
- 2022 01 현대중공업그룹 CES 2022 참가





현대중공업그룹 창립 50주년 기획

# 그룹 50주년을 축하합니다



## 굳건한 세계 1위, 지켜냈시다

IMF로 혼란스럽던 1998년에 입사해 누구보다 기쁘고 행복했던 옛 기억이 떠오릅니다. 24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 직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던 일들도 많았지만, 앞에서 이끌어준 선배님과 힘이 되어준 동료들 덕에 보람과 행복의 시간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가 직면한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10년 후에도, 다음 50년 뒤에도 글로벌 리더(Global Leader) 현대중공업이 되도록 저 또한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의장생산부 하상훈 기장

## 50년 장수기업, 자부심을 느낍니다

최근 급변하는 시대를 맞아 여의치 않은 경영환경 속에서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도산하는 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몸담은 조직이 50년 장수기업의 반열에 오른 것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현대맨의 긍지가 생깁니다. 50년을 넘어 100년 기업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현대미포조선 생산관리부 이종일 책임매니저

## 함께 했기에 이뤄낸 50년의 성과

세상을 50년 살다 보면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이가 됩니다. 현대중공업그룹 또한 50년 세월의 모진 풍상 속에서도 견고한 뿌리를 내리며 견뎌온 귀한 시간을 선물 받게 됐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걸림돌에도 굴하지 않고, 세상에 은은한 빛과 향을 내는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선배님의 바통을 이어 받아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50주년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현대중공업그룹 사우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안전부 최성규 책임매니저

## 대한민국 100년 기업을 향해

창사 5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출근할 때면 대한민국 역사의 한 현장에 와있는 듯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현대중공업그룹을 매 순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드를 조금만 걷다 보면 나오는 광활한 바다와 도크, 늘 향상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선배, 동료 분들, 그리고 커다란 골리앗 크레인까지! 다가올 50주년도 사우 분들과 함께 담담하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창사 5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대일렉트릭 사업기획부 박은혜 매니저

## 새로운 50년을 향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온 현대중공업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50주년을 맞이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50년의 시간을 '지천명(知天命)' 이라고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쌓아온 우리 현대중공업그룹의 눈부신 성공 경험과 지혜는, 포스트코로나 이후 급변하고 있는 현시대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50년의 영광에 이어 새로운 50년도 현대중공업그룹 파이팅!

현대제뉴인 경영기획팀 정지석 책임매니저

## 현대중공업그룹의 꽃피는 봄

지금까지 지나온 힘겨웠던 나날들은 현대중공업그룹의 더 높은 성장을 위한 훌륭한 발판이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쌓아 올린 노고는 단단한 방벽을 이뤄 온갖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는 편안함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셨고 창사 50주년에 이른 지금,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거름삼아 다시금 발아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50주년을 축하드리며 과거의 영광보다 더 밝은 빛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향후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현대건설기계 전략구매팀 전세흠 선임매니저

## 그룹 창립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위기와 기회를 넘나드는 매 순간 뚝심 있게 버텨온 결과, 조선 분야 세계 1위, 건설기계 국내 1위를 이루었습니다. 100주년에는 조선 분야 세계 1위를 굳건히 하고, 건설기계 분야에서도 세계 1위가 되길 바라봅니다! 현대중공업그룹 파이팅!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구매부문 김한걸 차장

## 다함께 50년, 힘차게 50년

대한민국 대표 기간산업의 1등 선두주자 현대중공업그룹의 50돌을 맞은 지금, 감회가 새롭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룹의 3대 사업군으로 자리매김한 현대오일뱅크가, 혁신적인 미래 친환경 에너지원을 책임지는 가장 역동적인 대한민국 1등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제가 무엇을 보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 경영기획팀 변우신 책임매니저

## 모두가 힘을 합쳐 이뤄낸 50년

어려운 시기에 그룹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 선배님들과 협력하여 이룩한 성과라고 생각되며 모든 사우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성장하는 현대중공업그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영업기획팀 조연수 사원

## 영광스러운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며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창립 50주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돼 매우 영광입니다. 조선입국(造船立國)의 꿈으로 허허벌판 울산 미포 만에 터 잡으신 창업자님의 정신을 이어가, 이곳 현대글로벌서비스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성실히 복무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여 영원하라!

현대글로벌서비스 영업기획팀 박수연 책임매니저

# AI 기술로 현대중공업그룹의 미래를 만든다

한국조선해양 AI솔루션연구실

글 웹진편집실

Editor's Note | 한국조선해양은 미래 조선업계를 선도할 원천기술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며 '최첨단 기술혁신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웹진 피플 섹션에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룹사 제품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AI솔루션연구실을 만나보았습니다.



“제품 설계부터 생산,  
안전관리, 서비스까지  
적용될 수 있는  
AI 솔루션을  
개발하겠습니다”

| 김형택 책임연구원



안녕하세요? 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 디지털연구랩 AI솔루션연구실 김형택 책임연구원입니다.

AI솔루션연구실은 선박을 포함한 그룹사 제품의 AI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2020년 12월 신설된 미래기술연구원의 막내 연구실 중 하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각광 받는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 비전을 활용한 인지·판단 기능, 기계류의 상태 진단 기능, 나아가 드론 활용 기술, 선박 사이버보안 기술 등 신기술 개발을 위해 20명의 젊은 연구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 먼 미래 일처럼 느껴졌던 AI 분야는 더 이상 학문과 이론의 영역이 아닙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앱, 로봇청소기, 스피커를 포함한 다양한 가전제품, 테슬라의 자율주행자동차 및 주가·환율 예측에 이르기까지, AI는 우리 현실 속에 점점 친숙하게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생소해 보일 수 있으나, 중후장대한 제품을 다루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다양한 영역에도 이미 AI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우리 그룹이 최초로 CES에 참가해 아비커스가 개발한 AI 기반의 자율운항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비커스가 AI 기술로 항해사의 역할을 대신한다면, 저희 AI솔루션연구실은 선박의 기계장치를

유지·보수하는 기관사나 갑판시설 및 장비를 관리하는 갑판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 이외에도 그룹사 제품 설계부터 생산, 안전관리, 서비스까지 폭 넓게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AI 솔루션을 발굴하고,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AI로 선박·공장 화재 잡는다

AI솔루션연구실은 지난해 통합안전관제시스템인 HiCAMS (Hyundai intelligent Camera based Alarm Monitoring System)를 개발하며, 업계 최초로 선박 안전관리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HiCAMS는 인공지능이 화재, 인명사고 등을 감시하는 AI 관제시스템입니다. 여러 대의 CCTV 영상과 화재 빅데이터를 분석해, 화재 발생 즉시 불씨와 연기 등을 신속하게 포착합니다. 스스로 데이터를 쌓아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을 통해 기존 화재 감지 센서에서 빈번한 오경보 가능성 등을 원천 제거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HiCAMS'의 시연 화면

AI는 풍부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 분야에서는 데이터 부족 문제를 많이 겪기도 합니다. HiCAMS를 개발할 때에도 무엇보다 유용한 화재 데이터를 대량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선박 기관실, 야드 곳곳에서 화재와 연기 데이터를 만들어 취득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고, 지금은 화재 탐지에 있어서 그 어느 외부 솔루션과 비

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정확한 판단력을 가진 솔루션이라고 자신합니다.

HiCAMS는 다양한 유관부서의 협력과 지원으로 계획보다 빨리 상용화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17만 4,000입방미터급 LNG운반선에 첫 적용해 6월 인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작년 하반기부터 조선안전부, SRM팀, 엔진생산기술2부와 협업을 통해 야드의 안전관리에도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의 화재탐지에 더해 누유·누기 등에 기인하는 사고를 사전에 감지하는 기술과 교통 위험을 관리하는 기능 등을 포함해 더 똑똑한 솔루션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협업으로 만드는 똑똑한 솔루션

앞서 말한 것처럼 AI 기술의 핵심은 의미 있는, 그리고 풍부한 데이터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데이터 부족의 한계를 해소하고 진정한 AI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각 사업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력과 협업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설계, 생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며 AI 솔루션을 적용할 분야를 찾고,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를 쌓아가며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AI를 접목해 기계 장비 및 부품의 상태를 진단하는 기술도 HiCBM(Hyundai intelligent Condition Based Maintenance)이라는 이름으로 개발 중입니다. 최근 스마트 고장 진단에 대한 선주 및 고객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향후 완전한 자율운항 선박 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솔루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현대중공업 개발설계2부, 전장설계부, 엔진사업부 및 현대글로벌서비스 디지털제어부문과 협업하며 이러한 스마트 고장진단 시스템 개발을 도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선박의 상세 설계의 과정을 AI 기술로 획기적

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로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선박의 배관설계(Routing)와 생산용 강재 배치(Nesting) 과정을 포함한 설계 과정에 AI를 접목하는 것은 마치 게임의 끝판왕을 상대하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함께 협력하고 있는 CAD개발부 및 각 설계부의 엔지니어, 전문가분들과 단계적으로 추진 계획을 세우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개발한다고 할 때, 가장 흔하게 접하는 반응 중 하나는 AI 기술을 활용하면 버튼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입니다. 이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부와 협력해 고객 편의를 증대할 수 있는 유의미한 솔루션을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조선해양 시솔루션연구실에 물어봤습니다!

### HiCAMS를 개발할 때 사용된 데이터의 용량은 얼마나 되나요?

HiCAMS의 데이터는 화재, 연기뿐 아니라 사람, 자동차, 오토바이 등 다양한 객체를 포함합니다. 데이터는 16GB 규모 95,000장의 이미지로 구성되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드, 엔진공장, 선박의 기관실 환경 등 중공업에 특화된 데이터가 많아 이 분야에서는 가장 똑똑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AI의 핵심인 데이터는 어떻게 취득하나요?

HiCAMS의 화재 데이터의 경우, 처음에는 인터넷 취득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만 사용했습니다. 이후 유관 부서의 협조로 선박 내에서 연기 발생기를 활용해 연기를 피우거나 야드 내에서 불을 피우고 촬영해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외에도 고장진단 솔루션에 필요한 기기의 고장 데이터를 얻기 위해 시험 장치를 고장내며 데이터를 얻기도 했습니다.

### HiCAMS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기존 센서의 경우 화재 발생 이후 연기가 천장에 닿아야 스프링클러가 작동합니다. HiCAMS는 영상 내 5% 크기의 연기를 5초 이내에 감지, 약 98% 이상 정확도로 화재를 인지해 알람을 줍니다. 향후 소화까지 자동화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나 소방 드론 등 후속 조치를 연계하는 과정도 연구 중입니다.

### 외부 기관과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나요?

그룹 차원에서 카이스트, 한양대학교 등 산학연과 AI 기술을 연구하는 협의체인 AI 원팀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대와 손잡고 AI 기반 산학협력체계를 수립하는 등 외부 트렌드를 살피며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AI 솔루션 개발의 수요는 어떻게 형성되나요?

기존 기술들로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어려웠던 안건들에 대해 AI를 활용해보고자 하는 아이디어에서 형성됩니다. 연구실에서 사업부로 새로운 기술 적용 혹은 개발된 솔루션의 확대 적용을 먼저 제안하기도 하고, 사업부의 전문가들로부터 도출된 아이디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 조선해양 외 다른 사업분야 에 적용되는 AI솔루션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난해 현대건설기계와 함께 굴착기 고장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외에도 그룹사 전 제품에 활용할 수 있는 도면 검사, 설계 자동화 등 AI 기반 설계지원 시스템과 미래 솔루션으로 주목받는 드론 활용 품질 검사, 안전 관제를 위한 시솔루션도 개발 중입니다.

# 그룹사 주요 소식



## 현대중공업그룹

###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 성금 10억 원 및 구호장바인력 지원

현대중공업그룹이 지난 7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강릉 등 동해안 산불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성금 10억 원을 기탁하고, 구호물자 및 인력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날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0억 원을 전달했으며, 현대건설기계와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등 계열사는 산불 피해지역에 굴착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복구가 긴급히 필요한 지역에는 그룹봉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현대중공업그룹은 봉사동호회 등에서 별도 봉사활동을 추진할 시에는 필요물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지역 출신 직원에게는 피해복구를 위한 유급휴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지주 권오갑 회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주민들이 다시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산사회복지재단도 같은 날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 성금 3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 현대중공업그룹

### 서울대와 손잡고 ‘조선해양’ 미래인재 키운다

현대중공업그룹과 서울대학교가 지난 7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석·박사 융합과정인 ‘스마트 오션 모빌리티’ 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과 서울대학교는 이를 통해 조선해양공학에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융합, 산학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한편 조선해양 분야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 갈 미래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다. 조선해양공학, 기계항공, 산업공학, 전기정보, 컴퓨터공학과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등 유관 분야 총 50여 명의 교수진이 참여하며, 석사 및 박사과정 총 80명을 복수전공으로 선발할 계획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정규 커리큘럼 외에 AI포럼과 현대중공업그룹 경영층 특강, 기술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어, 학생들이 직접 회사의 비전 설계에 참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며, 현대중공업그룹에 입사 지원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 현대중공업지주

### ‘HD현대’로 사명 변경

현대중공업지주는 지난 2월 24일 이사회를 개최해 사명을 ‘HD현대’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오는 3월 28일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명 변경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새 사명 HD 현대는 “인간이 가진 역동적인 에너지(Human Dynamics)’로 ‘인류의 꿈(Human Dreams)’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사명 변경은 제조업 중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투자 지주회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중공업지주는 향후 미래사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현대중공업지주는 그동안 신사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 지난 2021년 3월 한국투자공사(KIC)와 1조 원 규모의 공동투자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선도적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 인수 및 지분 투자에 나섰으며, 이어 하반기에는 투자전문 자회사인 현대미래파트너스를 통해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인 메디플러스솔루션을 인수한 바 있다.



#### 한국조선해양

### 선박 14척, 1조 8,500억 원 수주

한국조선해양이 이달 들어 총 1조 8,500억 원 규모의 선박 14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3일 유럽 및 중남미 소재 선사와 20만 입방미터(m<sup>3</sup>)급 대형 LNG운반선 3척, 8,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운반선 6척 등 1조 5,600억 원 규모의 선박 수주 소식을 알린 데 이어, 지난 11일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선사와 2만 2,000입방미터(m<sup>3</sup>)급 LPG운반선 1척, 2,800TEU급 컨테이너운반선 4척 등 2,900억 원 규모의 선박 5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대형 LNG운반선과 컨테이너운반선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LPG운반선과 2,800TEU급 컨테이너운반선은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돼 2023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가스선 및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선종에 걸쳐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풍부한 건조 경험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선박을 건조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대중공업

### 사우디 방산전시회 'WDS 2022'참가

현대중공업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 방산 전시회 'World Defense Show(WDS) 2022'에 참가해, 사우디 호위함(HDF-3800SA)과 미사일 고속함 등 중동 및 북 아프리카 시장 공략을 위한 10종의 함정 모형을 선보였다. WDS는 사우디 방위사업청(GAMI) 주관으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사우디아라비아 유일의 국제 방산 전시회로,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전 세계 404개 방산업체가 참여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이 직접 전시장을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현대중공업이 이번 전시회에서 공개한 HDF-3800SA는 전장 120m, 전폭 15m, 배수량 3,800톤급으로 대공, 대함, 대잠, 전자전 능력이 대폭 강화됐다. 또한, 6일 현대중공업은 킹 살만 조선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우디 현지 협력 조선소 IMI와 사우디 함정 사업 동반 진출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 현대삼호중공업

### 시운전 선박의 코로나 원천 봉쇄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시운전에 나선 31만 9,000톤급 초대형 원유운반선 'VL브라이트'호에 바이러스 사멸 램프를 처음 설치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섰다. 이 선박에는 조종실, 엔진룸, 회의실, 식당 등 밀폐공간 위주로 10여 개의 바이러스 사멸 램프가 설치되었으며, 30초 안에 바이러스의 99%를 없앨 정도로 소독 속도가 빠르고 인체에 무해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램프가 켜져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살균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다양한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시운전에는 회사 직원뿐 아니라 선박에 설치된 주요 기자재의 엔지니어와 선주, 선급 등 100명 이상이 승선해 각종 테스트를 진행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향후 모든 선박의 시운전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며, 바이러스 사멸 램프를 설계에 반영해 항바이러스 인증 선박도 건조할 예정이다.

### 현대건설기계·현대두산인프라코어

## 신흥시장 수주 및 온라인 마케팅 강화

현대건설기계가 아시아대양주 지역에서 500여 대의 건설장비를 잇따라 수주했다. 현대건설기계는 최근 남반구 최대 렌탈사 중 하나인 '포터(Porter)'사로부터 휠로더와 중대형 굴착기 181대를 수주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장비들은 올해 말까지 호주 뉴질랜드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현대건설기계는 앞서 지난 1월에는 인도차이나반도에서 22톤급 굴착기 320대에 대한 수주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현대인프라코어는 코로나 19 팬데믹에도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며, 신제품 소개 및 고객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유튜브(채널명: 굴로사 TV) 라이브 방송으로 '22년 신기종 7M(Model) 시리즈 론칭 행사'를 열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국내 건설기계 업계 최초로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신기종 온라인 론칭 행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국내 고객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 현대일렉트릭

## GE와 손잡고 해상풍력 시장 공략

현대일렉트릭이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의 자회사인 GE 리뉴어블에너지(Renewable Energy)와 손잡고 한국형 해상풍력 시장 공략에 나선다. 양사는 지난 2월 16일 분당 퍼스트타워 현대일렉트릭 본사에서 현대일렉트릭 조석 대표와 GE 리뉴어블에너지 조세핀 포드 전략 마케팅 총괄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 터빈 제조 및 사업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대일렉트릭은 이번 MOU를 통해 자사가 보유한 에너지솔루션 및 전력기기 분야 기술력에 GE 리뉴어블에너지의 대형 풍력터빈 제조 노하우를 결합, 대한민국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에 최적화된 12~14MW급 해상풍력 터빈을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현대일렉트릭과 GE 리뉴어블에너지는 풍력터빈 부품의 국산화에 힘을 모으는 한편, 정부 주관 풍력발전사업 프로젝트에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 울산현대축구단

## 전북서울 잡고 선두 질주

울산현대축구단이 쾌조의 4연승을 달리며, 개막 이후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 울산 문수축구장에서 열린 2022 K리그1 5라운드 FC서울과의 홈 경기에서 울산은 전반 서울에 선제골을 허용했으나, 후반 들어 엄원상과 레오나르도의 연속 골에 힘입어 2대1 역전승을 거뒀다. 또한 지난 8일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의 시즌 첫 맞대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귀중한 승점 3점을 획득했다. 이로써 울산은 김천 상무와의 시즌 개막전 무승부 이후 4연승을 내달리며, 승점 13점으로 단독 선두에 올라섰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영입한 브라질 출신의 특급 골잡이 레오나르도가 2경기 연속 결승 골로 연승을 이끌었다. 전천후 공격형 미드필더인 아마노 준 역시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 녹아들며, 이청용과 원두재 등 기존 선수들과 폭발적인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①



주목할 만한 이달의 역사

# 현대중공업, 세계 최초 스마트 선박 인도

글 웹진편집실

공동기획 현대중공업 사내방송국 HHBS

**Editor's Note** | 2011년 3월, 현대중공업이 첨단 IT기술이 접목된 세계 최초의 '스마트 선박' 건조에 성공했다. 이 선박은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가 2008년 발주한 4,500TEU급 컨테이너선으로, 2011년 3월 29일 첫 항해에 나섰다. 이달에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 그룹의 스마트 선박 기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2011.3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최초의 스마트 선박 ‘머스크 코나크리’호

### ‘스마트 선박’ 세계 첫 항해 나서

2011년 3월 29일, 현대중공업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공동 개발한 선박통신기술이 적용된 세계 최초의 ‘스마트 선박’이 인도됐다. 세계 1위 해운사 머스크(Maersk)가 2008년 6월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4,500TEU급 컨테이너운반선 22척 중 첫 번째 선박인 ‘머스크 코나크리’호였다.

스마트 선박은 선박 엔진과 제어기, 각종 기관 등의 운항정보를 위성을 통해 육상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선박 내 통합시스템을 원격 진단 및 제어할 수 있는 선박으로, 미래 조선 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기술로 주목 받아 왔다.

머스크 코나크리호는 주기관, 보조기관, 제어기 등의 운항정보를 위성으로 육상과 연결하여 선박 내 제어시스템을 원격으로 실시간 점검 및 진단할 수 있는 초기 형태의 스마트 선박이었다. 현대중공업은 선박의 기관감시제어장치,

항해정보기록장치, 주 추진제어장치 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 460여 종의 선박 기자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선박통합통신망(Ship Area Network, SAN)을 구축했다. 이 선박통합통신망을 통해 수집, 분석, 가공한 정보는 선박의 경제적 운항은 물론 선박 내 기자재의 재고관리도 가능하게 해줬다. 특히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 점검 및 진단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선박 인도 당시 앤더스 보에나스 머스크 부사장은 “스마트십은 선주의 니즈인 선박의 첨단화와 함께 선박 운항의 효율성을 반영한 차세대 선박으로, 앞으로 건조되는 선박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스마트 선박 고도화로 시장 선도

세계 최초 스마트 선박 인도는 현대중공업그룹이 세계 스마트 선박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단초가 됐다. 우리 그룹은 이후 스마트 선박 기술 고도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 초기 스마트 선박에서 나아가 해당 선박 자체의 정보뿐 아니라 주변 선박의 운항 정보와 항해 계획, 항로 주변의 기상 상황까지 지상에서 종합 분석 할 수 있는 ‘스마트십 2.0’의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2017년에는 ICT 기술을 활용해 경제적, 안정적 선박 운항과 관리를 지원하는 통합스마트선박솔루션(Integrated Smart ship Solution, ISS)을 개발했다. 현대일렉트릭의 산업용 에너지 솔루션 ‘인티그릭(INTEGRICT)’을 기반으로 개발된 ISS는 항해사의 숙련도와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항해 방법을 표준화하고 운항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저항을 최소화하는 선체 전후 기울기 정보와 최적의 운항 속도를 알려줘 안전성을 높이고,

전자해도(海圖) 상에 실시간 날씨 정보를 표시해 효율적인 운항을 돕는다. 더불어 에너지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과 엔진, 프로펠러 등의 가동 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상태로 선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0년에는 독자 개발한 지능형 선박기자재관리솔루션(HiEMS)에 AI와 빅데이터, Io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선박운전최적화시스템도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선박의 동력을 만드는 발전엔진의 상태를 AI가 분석하고 제어해 최적의 연비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 그룹은 앞으로 모니터링 수준에서 제어 수준으로 솔루션의 범위를 확장하고 주기관 및 보조기관 등에 대한 상태 진단 모니터링을 고도화하여 대양 항해를 지원하는 수준의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 그룹은 글로벌 선박 데이터 시장의 주도권 확보에도 나섰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21년부터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사 및 관련 기관들과 함께 스마트십 플랫폼 공동구축 추진단을 구성, 데이터 표준화 및 플랫폼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스마트십 플랫폼 시장의 니즈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플랫폼은 오픈 소스로 개발되어 조선업뿐만 아니라 기자재, 해운 등 전·후방 산업의 스마트화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현대중공업그룹의 스마트 선박은 글로벌 스마트십 생태계 구성에 기여하고 조선산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ICT 기술을 선박과 융합해 새로운 디지털 선박 시대를 주도할 우리 그룹의 미래를 응원한다. ①

# 톡톡 튀는 디지털 혁신으로 제조공정 레벨 업!

## 제2회 현대중공업그룹 빅데이터·AI 대학생 경진대회

글 한국조선해양 빅데이터팀

‘제2회 현대중공업그룹 빅데이터·AI 대학생 경진대회’가 시상식을 마지막으로 2개월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대회는 2021년부터 우리 그룹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대회를 통해 그동안 쌓은 이론적인 지식을 실무로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그룹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며 중후장대 기업에서 디지털 혁신 기업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십 개발, 스마트조선소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혁신을 주도할 인재 육성 및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현대중공업그룹은 '제1회 현대중공업그룹 빅데이터·AI 대학생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 끝에 열린 이 대회는 다행히 많은 참여자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제2회 현대중공업그룹 빅데이터·AI 대학생 경진대회'는 지난해 말 한국마이크로소프트, KT, PWC 등 유수의 기업들의 후원을 받으며 개최됐다. 대학생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인스타그램, 온라인 카페 등 SNS를 통해 대회 참가를 홍보해, 짧은 홍보기간에도 국내외 90여 개 대학 186개팀이 신청을 했다. 참가자 수도 550여 명에 달했다.

참여자 수가 많았던 만큼 우수한 재원이 많아 본선 진출 팀을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서류심사를 통해 총 20개팀이 본선에 올라가게 되었고, 이 팀들은 올해 1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약 4주간의 본격적인 과제 해결에 돌입했다. 공정함을 위해 모든 참가팀들에게 동일한 작업환경이 주어졌다.

올해 대회는 지난 대회보다 과제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그룹사에서 실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선정, 두 가지 과제를 출제했다. 첫 번째 과제는 현대중공업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화물 운반 차량의 유휴 시간을 최소화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화물 적재 여부 판단에 대한 영상 분석'이다. 두 번째는 현대삼호중공업의 '강제 입출고 관리 자동화를 위한 광학 문자 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프로젝트다.

두 가지 과제 중 하나만을 선택해 해결하게 했던 지난 대회와는 다르게, 이번 대회에서는 제한 시간 내에 두 개의 문제를 모두 푸는 것이 조건이었기 때문에 출제자들도 '혹시 중도포기자들이 다수 발생하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다. 실제로 높은 난이도에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고 포기한 팀들도 일부 있었지만, 20개팀 중 16개팀이 기한 내 과제를 완벽히 수행해 결과를 제출했다. 참가팀들은 지난 2월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발표회를 통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쳤다.

그 결과, 최적화된 알고리즘 제시와 함께 논리적인 전개, 명확한 역할 분배를 통한 팀워크를 보여준 2030팀(UNIST 산업공학과)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더불어 SMART PRODUCTION SYSTEM팀(고려대 산업경영공학과)과 DA Lab팀(UNIST 산업공학과·인공지능대학원)이 우수상을, SEED팀(서울대·연세대 기계공학과), AJSS팀(아주대 소프트웨어공학과), 현대중공업 떡상기원팀(경희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2030팀은 타 팀들과 유사한 모델을 사용하여 과제를 해결했지만 효율적인 데이터 전처리로 빠른 처리속도를 구현했다. 또한 데이터들을 정제할 때 핀셋처럼 오류를 잡아내는 꼼꼼함도 보여줬다.

우리 그룹은 지난 2월 25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한국조선해양 이태진 디지털혁신부문장,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김원태 엔터프라이즈 글로벌 사업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를 빛낸 6개 수상팀에게 총 1,4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앞으로 대회를 주관한 한국조선해양 디지털혁신부문은 이번 수상작들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검증 및 최적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회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

해 참신한 아이디어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 시상에 그치지 않고 수상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채용 인센티브 제공으로 우리 그룹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적극 확보해나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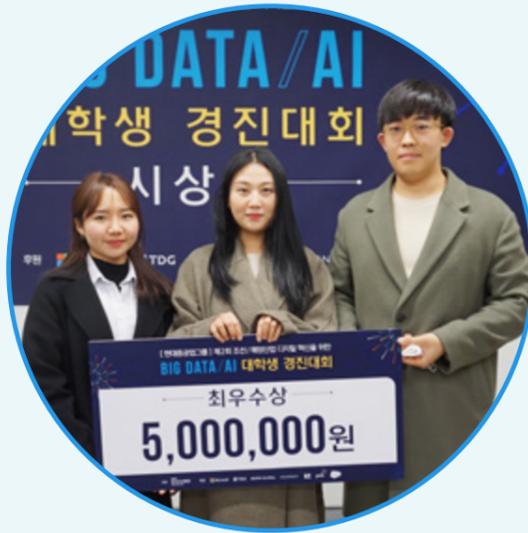


**한국조선해양  
이태진 디지털혁신부문장**

“현대중공업그룹 빅데이터·AI 대학생 경진대회는 우리 그룹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를 외부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조 현장 곳곳에서 생성되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그룹의 디지털 혁신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열린 대회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참가팀의 결과물 하나하나가 이번 대회의 큰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 그룹의 미래를 주도할 디지털 혁신 인재를 발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우수상 수상팀 인터뷰

**2030팀**  
(UNIST 산업공학과)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2030팀의 구민주, 김경호, 최재경입니다. 먼저 대회를 주최해주시고 원활한 진행에 힘써 주신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한 달간 열심히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이렇게 큰 상까지 받아 부듯한 마음입니다.



대회에 참가한 특별한 동기가 있나요?



저희 셋 모두 UNIST 산업공학과 임성훈 교수님 아래서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입니다. 연구실에서 쌓아온 지식이 실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회의 과제들을 해결하며 저희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다방면으로 응용 및 활용할 수 있었고, 실제 현장에 대입해 보는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번 대회의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났나요?



저희가 생각한 문제와 대회에서 제시된 과제가 달라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밝기가 다양하여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데이터, 손글씨 등으로 구성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한 데이터 등 과제 해결 초입인 연구조사 때 막막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팀원 모두 까다로운 영상 데이터를 다뤄본 경험이 있어 빠르게 판단하여 과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수상을 하게 된 우리 팀만의 과제 해결 비법은?



과분한 수상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생각하는 비법은 '역지사지'입니다. 대회의 문제를 보자마자 현장에서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요인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논리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장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노력했기에 다양하면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 검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어려웠거나 아쉬웠던 점이 있나요?



과제를 수행하며 '높은 성능'과 '처리 속도'를 동시에 만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 2030팀의 경우 빠른 처리 속도로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3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나름의 타협을 한 것이죠. 기회가 있다면 다양한 데이터 처리 및 증대 방법을 적용하여 '높은 성능', '처리 속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보고 싶습니다. 🙌



# STORY

Trend

Health

Culture

Story +

Hstagram

Quiz



“때로는 혼자도 괜찮아”

#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여행, 혼행

글 윤슬빈 | 뉴스1 여행전문기자



코로나19 이후 여행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까. 전 세계 많은 여행 관련 조사 결과에서 꼽은 공통점이 있다. 전염병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은 여행객들이 검증된 여행사나 동행자, 여행지, 숙소, 식당, 교통시설 등을 더 선호하고, 특히 혼자 하는 여행을 뜻하는 ‘혼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는 것이다.

통계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혼자 하는 여행 수요(2018년 2.5%→2019년 4.1%→2020년 4.8%)는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구글이 발표한 2019년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여성의 ‘단독 여행’에 대한 검색률은 관심이 전년과 비교해 230% 늘었다.

‘혼행’은 수년 전부터 등장한 트렌드지만 코로나19를 만나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여행객 가운데 ‘혼행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했다.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이 코로나19 유행 이전(2019년 2월~2020년 1월)과 그 이후 기간(2020년 2월~2021년 1월)의 여행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혼자 숙소를 예약하는 이들이 전체 예약의 약 76%를 차지했다. 반면, 1인 여행객을 제외한 2인 이상의 그룹 여행객들은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에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장기적으로 적용하면서, 소규모로 안전하게 여가를 즐기려는 수요가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2 국내관광 트렌드’에 따르면 개인화, 파편화 등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삶의 태도가 여행행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 속 ‘나’를 챙기는 행위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지역·자연 속의 경험을 통해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여행행태가 나타난 것이다.

자연 관광지 4%, 캠핑장 27% 등 2021년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광지들의 내비게이션 검색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또 도보여행(등산), 캠핑(차박), 힐링여행(불멍, 바다멍, 물멍), 지역 친화(워케이션, 살아보기) 등의 연관이 인기 끌었다.



### 우리나라 여행객 93%, 혼행에 긍정적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여행객이 혼자 여행을 떠나는 '혼행'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자유여행 액티비티 플랫폼 클룩(Klook)이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유고브(YouGov)와 전 세계 16개국 약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혼행 트렌드' 조사 결과, 한국인의 혼행 선호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17% 높았다. 전체 답변자의 76%가 혼자 여행을 떠났거나 고려하고 있다고 답하며 '혼행'에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 가운데, 한국인의 경우 무려 93%가 '혼행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 홀로 여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빠르게 혼행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다. 한국 응답자들은 세대별로 Z세대(18~24세)는 42%, 밀레니얼 세대(25~29세)는 63%, X세대(40~54세)와 베이비부머(55세 이상)에서는 51%가 혼자 여행을 경험해봤다고 답하기도 했다.

혼자 여행을 선택한 동기에 대해선 77%가 '일상에서 벗어난 휴식의 기회'라고 답했다. '나만의 시간'과

'스스로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는 답변이 52%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여행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독립성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암시한다.

혼행 중 가장 선호하는 활동 1위는 '현지 명소 방문'이었으며, 2위는 '계획 없이 돌아다니기', 3위는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라는 답변이 차지했다. 특히 3위인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는 조사 대상 시장 중 우리나라의 답변 비율이 47%로 가장 높아, 앞서 언급한 '한국인의 혼행=일상탈출 기회'의 공식을 뒷받침했다.

### 2030엔 로망, 4050엔 은퇴 기념 이벤트로 꼽혀

지난 2월 한국관광공사가 소셜데이터, 카드 데이터 및 여행소비자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혼행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혼행은 일반적인 여행뿐 아니라 혼캠(혼자 캠핑), 혼등(혼자 등산), 혼캉스(혼자 바캉스) 등 세분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혼행을 떠나는 주된 이유는 혼자만의 사공간,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 즉흥 여행의 편리함 등이다. 혼행의 장점으로는 편리한 일정 조정·의사 결정, 1인에게 쾌적한 숙소, 자유로움 등이 꼽혔다. 혼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는 2030세대는 혼행에 대한 로망, 동반자와의 스케줄 조정의 어려움 등을 들었고, 4050세대는 은퇴 기념, 관계에서 벗어나는 수단 등을 꼽았다.

혼행지로는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제주, 부산, 서울, 경주, 강릉, 전주 등이 많이 언급됐다. 제주도에서는 해수욕장과 트레킹 코스, 부산

에서는 바닷가와 흰여울 문화마을, 서울에서는 경복궁 등에 대한 인기가 높게 나타났다. 경주는 황리단길, 야경, 도보여행이, 강릉은 경포대, 바다 풍경, 카페투어, 중앙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고, 전주는 객리단길, 효자동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혼행지로 떠올랐다.





2030세대 및 4050세대 모두 코로나19 이후 혼행 증가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혼행 내용 면에서는 4050세대가 코로나가 별다른 변화를 줬다고 느끼지 못하는 반면, 2030세대는 비대면 여행(키오스크, 차박 등), 당일여행, 야외공간 이용 증가 등을 들었다. 혼행 정보에 관해서는 2030세대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4050세대는 기사, 잡지, 블로그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아쉬운 혼행 인프라... 안전도 걱정**

이처럼 혼행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고 있지만 아직은 아쉬움과 우려를 낳는 부분도 많다. 혼행의 걸림돌로는 주변의 불편한 시선, 1인 메뉴 제한에 따른 혼밥의 어려움, 안전 우려, 교통의 불편함, 높은 여행비용 등이 거론된다.

한국관광공사의 조사 결과를 보면 혼행의 애로사항에서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2030세대는 혼밥과 치안 문제, 4050세대는 주변 시선과 반려동물 동반의 어려움을 꼽았다.

서울관광재단이 서울시민 1인 가구 1,5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이같은 흐름이 포착됐다. '나홀로 여행'시 고려하는 부분으로 '여행 안전'(50.1%)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그 뒤로 '식사'(49.9%), '숙소'(49.6%) 순이었다.

'여행 안전'과 관련된 희망사항으로는 나홀로 여행객을 노린 범죄 대처 방안, 등산로·산책로 안전 대책 마련 등이 언급됐고 '식사'는 식당 1인 메뉴 등이 언급됐다.

이어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1인 여행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도 제시됐다. 혼행에 대한 인식 개선을 비롯해 1인 메뉴 확대, 셀프 포토존 확산, 짐 보관 및 이동 서비스 개발, 안전여행 동행 서비스 개발, 샘플러 메뉴 개발, 1인 체험프로그램 및 혼행 할인프로그램 활성화, 시티투어 등 교통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과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가지 이유로 여전히 홀로 하는 여행이 망설여지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혼행이 대중화 돼 더 많은 사람이 혼자 여행에 나서게 된다면 앞서 언급된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찾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봄에는 혼자 훌쩍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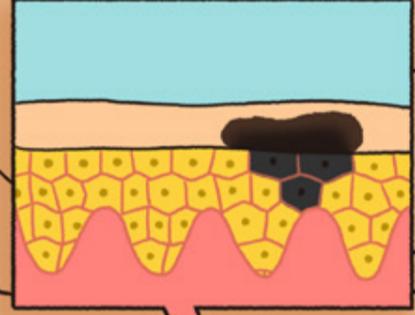


# 어? 못보던 점이 생겼네... 혹시 피부암?

글 이우진 |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부교수  
그림 정민영 | 일러스트레이터



조직검사 결과  
점이 아니라 암입니다...



네?! 암이라고요!!  
어떻게 점이 암이 될수있죠??

요즘 윤 선님의 가장 큰 걱정은 배 위의 점이다. 고작 점 따위가 무슨 걱정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일까 말까 했던 점이 몇 년 새 5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로 커지자 윤 선님의 근심도 커졌다. 결국 찾은 피부과에서도 고개를 가웃하며 큰 성형외과에 가볼 것을 권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성형외과에서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가 충격적이었다. 바로 피부암이라는 것. 점이 암이 되다니, 이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란 말인가.

## 피부암의 주된 원인은 자외선

피부암은 피부의 어떤 조직에서 생겨나는 악성 변화를 총칭하는 것으로, 가장 흔한 외부요인인 자외선에 의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서양에 비해 발병률이 낮지만, 최근 10년간 발생 건수가 3배나 증가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피부암의 종류는 기저세포암(42.1%)과 편평세포암(19.5%)이며, 이외에도 악성흑색종(10.7%) 등이 있다.

기저세포암은 피부 표피의 가장 아래에 있는 기저세포와 털을 이루고 있는 모낭세포가 악성화된 종양이다. 주로 일광화상과 같은 강한 자외선 손상이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햇빛 노출 부위에 피가 나고 딱지가 앉았다가 나은 후 다시 피가 나는 것이 반복되는 등 잘 낫지 않는 상처 때문에 내원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병변(질병으로 변화한 조직)의 가장자리가 둥글게 말려 있고 궤양이 동반되는 사례도 있다. 점으로 생각했던 병변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거나, 점을 레이저치료 등으로 제거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재발한다면 기저세포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편평세포암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각질층을 만드는 각질 형성 세포에서 유래한 악성종양이다. 주로 자외선 노출로 인해 얼굴, 그 중에서도 뺨과 아랫입술에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단단한 혹 또는 사마귀처럼 보이거나 깊은 상처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처가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파열되어 피가 나면 이 암을 의심해 봐야 한다.

악성흑색종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멜라닌세포에서 기원한 암이다. 동양인에게는 손, 발, 손톱, 발톱, 팔, 다리 등의 말단 부위에 주로 생기는데, 손발톱에 검은색 또는 갈색의 선이 나타나거나 손발바닥의 갈색 및 흑색 반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악성흑색종은 악성도가 매우 높은 암으로, 흔히 점처럼 보일 수 있어 조기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 조기발견만이 완치의 지름길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의 경우 비교적 예후가 좋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게 되면 수술적 치료만으로 완치가 가능하다. 악성흑색종도 1기인 경우에는 수술만으로 95% 이상 완치가 가능하나, 3기 이상 진단이 늦어질 때에는 5년 생존율이 50% 이하로 떨어진다. 피부암의 조기발견이 중요한 이유다. 따라서, 점이 갑자기 생기거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전문가를 찾아 확인하자.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 1) 임상적으로 좌우 비대칭적인 모양을 띠는 경우,
- 2)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하고 들쭉날쭉한 경우,
- 3) 한 병변 내에서 갈색, 검은색 등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과 음영을 보이는 경우,
- 4)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튀어 올라오거나 색이나 크기가 갑자기 변하는 경우,
- 5) 점으로 생각하여 레이저 치료를 받았지만 반복적으로 재발하고 점차 크기가 커지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진료를 권장한다.

# 피부암, 무엇이 궁금한가요?



#1

몸에 점이 많으면  
흑색종이 잘 생긴다던데...



일반적으로 많은 수의 점이 있는 경우 흑색종의 위험도가 크다. 점이 전암병변(암이 되기 전 단계의 병리적인 변화)은 아니지만, 점이 많은 경우 흑색종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점과 흑색종의 관련성은 동양인보다 서양인에게 더 높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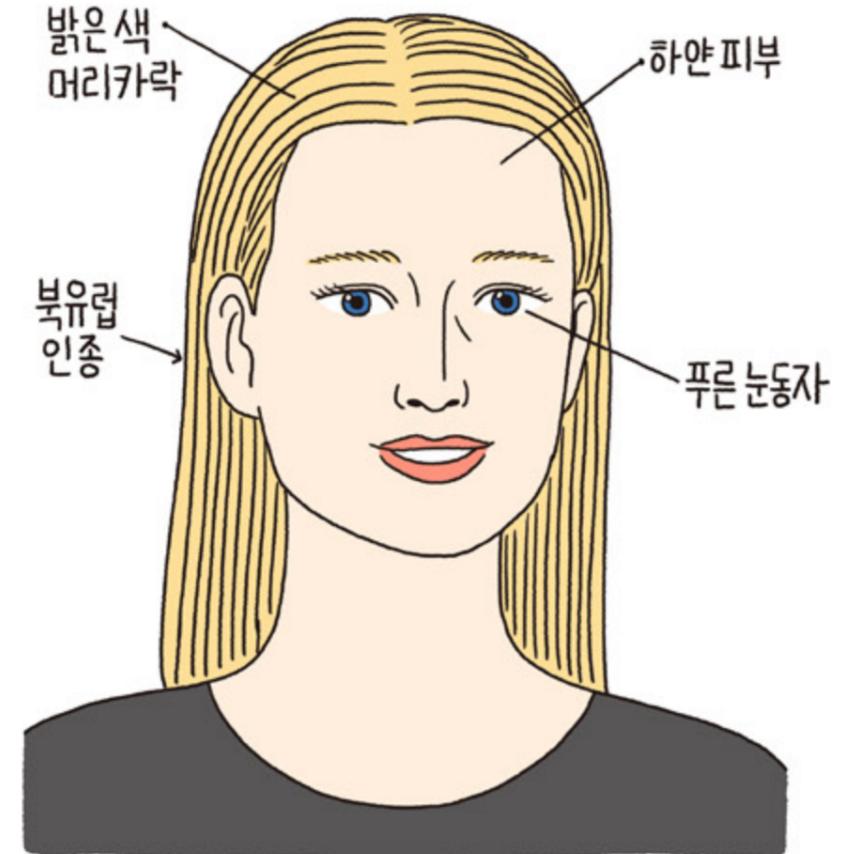
가족력도 피부암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흑색종의 경우에는 가족력의 가능성이 1~8%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동양인들에게 이러한 가족력에 의한 피부암 발병 사례가 보고된 것이 50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직 가족력과의 상관관계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기저세포암도 다발성으로 생길 때 모반모양 기저세포암 증후군과 같이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있다.

#3

피부암에 잘 걸리는  
신체적 특징이 있을까요?



하얀 피부는 멜라닌 색소의 양이 적어 자외선에 노출에 약해 피부암에도 취약하다. 일반적으로 하얀 피부, 밝은 색의 머리카락, 푸른 눈동자, 북유럽 인종, 태닝이 잘 안되는 피부에서 피부암이 더 잘 발생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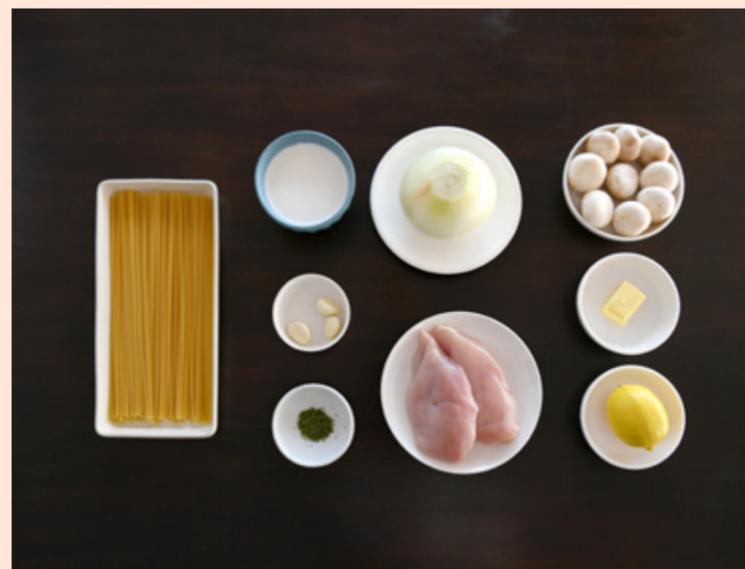
요알못들을 위해  
**K사우가 간다!**

글·사진 웹진편집실  
레시피 제공 문대일 | 한국조선해양 사업관리팀

## 닭가슴살 레몬크림파스타 편

**Editor's Note** | 우리 그룹의 모든 '요알못(요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표해 K사우가 나섰습니다. 올해 걸쳐 섹션은 임직원들이 보내준 레시피를 K사우가 직접 요리해보고 평가하는 코너로 채워집니다. 3월에는 레몬향이 가득하고, 닭가슴살을 곁들여 근손실까지 막아주는 파스타 메뉴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재료 | 파스타면 200g, 닭가슴살 200g, 생크림 200ml, 레몬 2개, 양송이버섯, 양파 1/2개, 버터 15g, 마늘 3쪽, 파슬리 가루



## 닭가슴살 레몬크림파스타



**1** 레몬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10분간 담가둔다.



**2** 1의 레몬을 건져서 끓은 소금에 문질러 깨끗이 세척한다.



**3** 레몬 겉껍질을 강판에 갈아 제스트를 만들고, 즙은 따로 짜 둔다.



**4** 닭가슴살을 반으로 저며 펼친 후, 소금, 후추, 레몬 제스트 절반을 뿌려 재워 둔다.



**5** 양송이버섯과 양파는 채 썰고, 마늘은 저며서 준비한다.



**6** 달궈진 팬에 식용유와 올리브유를 반반 섞어 두르고 중불에서 같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닭가슴살을 굽는다.



**7** 닭가슴살을 꺼낸 팬에 버터를 올리고 주걱으로 버터를 밀면서 바닥을 닦듯이 밀어 바닥에 늘어붙은 부스러기를 떼어낸다.



**8** 7에 마늘, 양파, 버섯 등 야채를 올려서 숨이 죽을 때까지 볶다가 생크림을 부어 끓인다.



**9** 소스를 만드는 동안 소금물에 면을 삶고, 물기 제거 후 올리브유를 살짝 뿌린다.



**10** 소스에 남은 레몬제스트와 레몬즙을 넣고 소금, 후추로 간을 한다.



**11** 소스가 되직해지면 그릇에 삶아둔 면을 담고 소스를 끼얹어 준다.



**12** 면 위에 구운 닭가슴살을 올리고 파슬리가루를 뿌려 완성한다.

**K사우의 Tip!** 이 과정을 '데글레이즈'라고 해요!

## K사우의 한줄평



레몬즙의 신 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려요.



재료손질은 번거롭지만 만들기는 쉬워요.

### 요알못을 위한 Tip

- ✔ 레몬향은 제스트에서, 신 맛은 즙에서 나와요. 선호도에 따라 레몬즙의 양을 조절해주세요.
- ✔ 남은 레몬즙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먹으면 굿!
- ✔ 유기농 레몬을 사면 레몬 손질의 귀찮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 유튜브 <현대중공업TV> 채널에서 K사우가 요리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보기



**Editor's Note** | Story +는 사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정보를 모아 함께 읽어보는 코너입니다. 사우들 인생의 소소하지만 특별했던 경험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영향을 미친 는 무엇인가요? 사람, 사건, 사물,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제목과 사연(500자 내외)을 보내주시면 선정된 사우에게 갤럭시 워치4를 드립니다.

보내는 곳 - [magazine@hhi.co.kr](mailto:magazine@hhi.co.kr)  
 (현대중공업그룹사, 협력회사 사우 및 가족 참여 가능)

사우의 글

## 내 인생의 영화

글 양지원 | 현대제뉴인 인사지원팀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이다. 매일매일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영화 『어바웃타임』의 주인공 ‘팀’의 대사다. 이 영화의 주인공 팀은 20살 생일에 그의 가문 남자들이 대대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팀은 이 능력으로 운명의 여인을 만나 가정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지내지만, 사랑하는 동생의 마약중독 등 주변의 불행한 일들을 되돌리기 위해 과거로 반복해서 되돌아간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세상에 완벽한 삶은 없으며 현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시간여행을 하지 않게 된다. 누구나 살다 보면 되돌아 가고 싶은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나에게 팀과 같은 능력이 있다면 어느 순간으로 되돌아가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본적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에, 미처 예견하지 못한 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가지 일어나기 마련이다. 자신의 삶에 완전하게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물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팀조차도 되돌아가 고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도 말이다. 가끔 어제의 일을 후회하거나 자책하며 마음이 불편할 때는 이 영화를 다시 보며 생각했다. 영화 속 팀처럼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나는 하루하루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생을 즐기는 방법이겠구나 하고 말이다. 앞으로도 나는 완벽하지 않은 어제를 후회하기보다 오늘에 최선을 다하며 즐기는 쪽에 힘을 쓰고자 한다.



# 물리학과 상상력이 교차해 만들어가는 '시간여행' 이야기

글 웹진편집실



## #시간여행, 과연 가능할까?

과거나 미래를 여행하는 시간여행은 소설, 영화 등 SF물의 단골소재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다. 그렇다면 실제로 시간여행은 가능할까? 아이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전의 뉴턴 역학에서는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한결같이 흐르고, 우주의 어디에서나 시간이 완전히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빛의 속도와 가까운 속도로 운동하는 쪽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주장하는 아이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측자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세상에는 어쩌면 시간 여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됐다.

## #시간의 상대성 설명하는 쌍둥이 패러독스 이야기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른다는 상대성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우선 쌍둥이 형제 가운데 동생은 지구에 남아 있고, 형은 빛에 가까운 속도로 비행하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에 나갔다 돌아왔다고 가정한다. 형이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지구에 남은 동생은 열 살의 나이를 먹은 데 비해, 우주를 탐험하고 돌아온 형은 한 살밖에 나이를 먹지 않았다. 동생이 형보다 아홉 살이나 더 나이를 먹게 된 것이다.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의 나이가 달라지고, 형은 9년의 세월을 넘어 미래의 지구에 도착한 셈이다. 이것이 바로 '쌍둥이 패러독스'이다.

## #시간왜곡을 표현한 '타임워프'

제한된 시간의 법칙을 넘어서서 특정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을 다루는 시간여행 영화도 제각기 서로 다른 설정을 두고 있다. 먼저 '타임워프(Time Warp)'의 'warp'란 '휘게 만들다, 비뚤어지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타임워프는 시간이 왜곡돼 과거나 미래의 일이 현재에 뒤섞여 나타나는 설정을 말한다. 2016년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온 드라마 『시그널』이 대표적이다. 이 드라마는 현재의 형사 박해영(이제훈 분)과 15년전에 살고 있는 또다른 형사 이재한(조진웅 분)이 '무전기'라는 장치를 활용해 서로 교신하며 과거와 현재의 일을 해결해 나가는 내용이다.

##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타임슬립'

'미끄러지다'라는 뜻의 'Slip'에서 알 수 있듯, 이야기 속 인물이 과거나 현재, 미래로 이동하는 시간여행을 타임슬립이라고 한다. 시간여행을 다룬 다른 설정들에 비해 직접 주인공이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여행을 한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사고에 가까운 초자연현상에 의해 시간여행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거스르는 타임머신을 이용한 시간여행과는 구분된다. 대표작으로는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2007)』이 있다. 이 영화는 피아노를 연주하며 미래와 과거를 오가는 설정 안에서 주인공들의 아슬아슬한 사랑을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감성적으로 그려내 큰 사랑을 받았다.

##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 '타임리프'

타임리프는 '시간'을 뜻하는 Time과 '되돌린다'를 뜻하는 Replay의 합성어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을 다룬다. 이 능력이 생긴 주인공들은 과거로 돌아가 특정 사건에서의 '선택'을 달리하여 현재를 바꾸고자 노력한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2006)』는 타임리프 설정을 다룬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이다.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갖게 된 여고생이 자신이 바꾼 과거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보면서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깨닫게 된다. 앞서 사우의 글에서 소개된 『어바웃타임(2013)』도 타임리프를 활용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로맨스물에 속한다.

## #똑같은 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타임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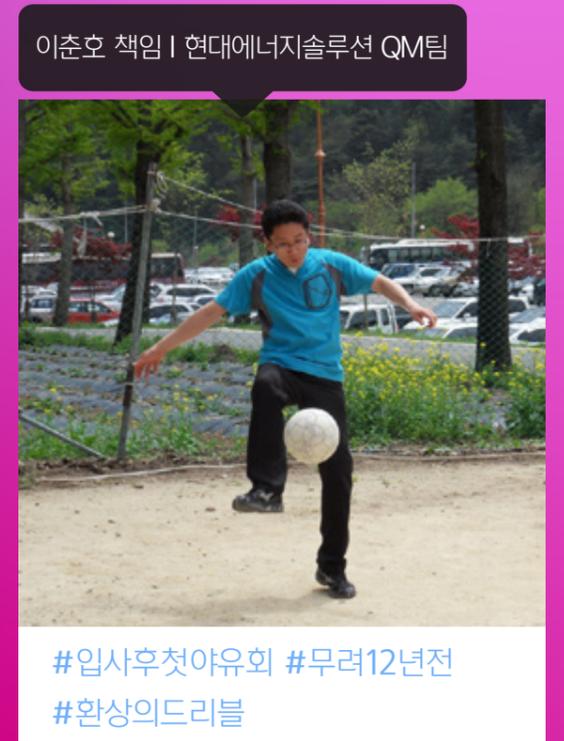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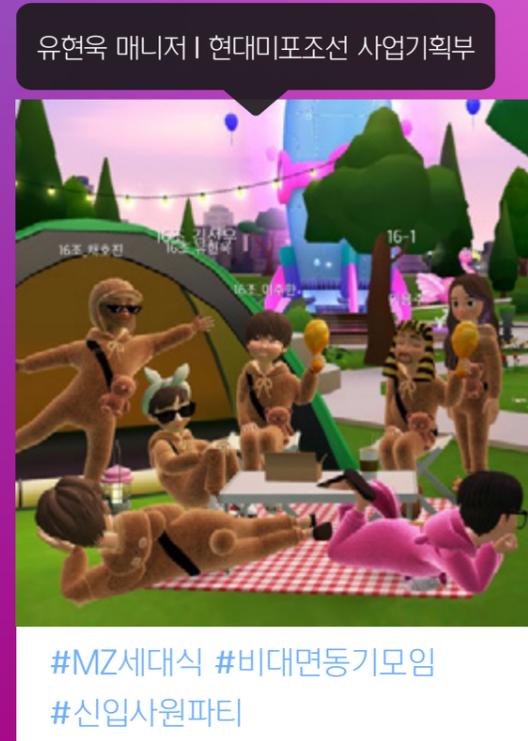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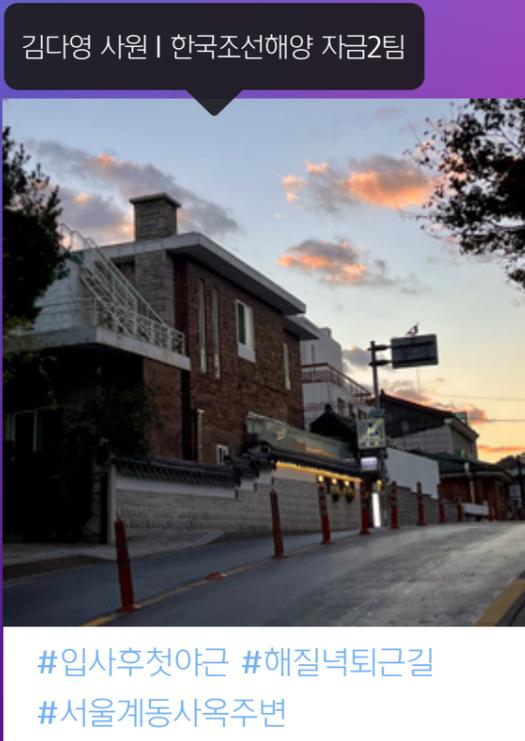
타임루프 영화에서는 동일한 시간과 장소로 되돌아가는 이야기가 주된 소재로 활용된다. 등장인물이 계속해서 똑같은 날과 상황을 반복해서 겪으며 벌어지는 사건들이 스토리의 기본 설정이다. 영화 『사랑의 블랙홀(1993)』은 타임루프계의 고전으로, 타임루프물의 특성을 정의하여 하나의 독립적인 장르로 자리잡게 만든 작품으로 불린다. 이 영화는 교만한 기상캐스터가 성축절(우리나라의 경칩과 비슷한 기념일) 취재를 나간 마을에서 폭설로 갇힌 후 계속 같은 날이 반복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반복되는 하루를 내일로 만들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진정한 사랑'이다. **H**

#Hstagram

# 나의 입사 후 추억을 소개합니다

Editor's Note | Hstagram은 매달 주제를 정해 사우 여러분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3월호에는 사우들의 입사 후 추억을 수록하였습니다. 4월호의 주제는 '피크닉'입니다.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 키워드 3개를 보내주세요. 선정된 사우에게 갤럭시 버즈 프로(베스트 컷 1명)와 문화상품권(6명)을 드립니다.

보내는 곳 - [magazine@hhi.co.kr](mailto:magazine@hhi.co.kr)  
(현대중공업그룹사, 협력회사 사우 및 가족 참여 가능)



이번 호에 실린 글을 읽고 아래 퀴즈의 정답을 찾아 보내주세요.  
정답을 모두 맞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소속 회사, 부서,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보내는 곳 - magazine@hhi.co.kr

기한: 2022년 3월 31일



갤럭시 버즈 프로  
(1명)



문화상품권  
(10명)

# QUIZ

1

1974년 6월에 명명식을 진행한 현대중공업 1호 선박 이름은?

- ① 애틀랜틱 배러니스    ② 애틀랜틱 배런    ③ 현대유토피아

2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세계 최초의 스마트 선박 '머스크 코나크리'호와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덴마크 해운사에서 발주    ② 4,500TEU급 컨테이너선    ③ 2021년 3월 인도

3

매거진 H 이번 달 Story + 사우의 글 주제는?

- ① 여행    ② 사진    ③ 영화

2월호 퀴즈 정답    1. ③ 현대글로벌서비스    2. ② 쿠바    3. ③ 티빙

### 당첨자

갤럭시 버즈 프로 (1명)

장순식 | 현대미포조선 의장1부

문화상품권 (10명)

홍원표 | 현대일렉트릭 배전반설계부

김진원 | 현대오일뱅크 석유화학트레이딩팀

정현교 |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배준호 | 현대오일뱅크 정유2팀

김용덕 | 현대중공업 기본계획부

김봉진 | 현대중공업 선체생산설계부

조인현 | 현대일렉트릭 회전기생산부

임귀진 | 현대중공업 외업공사지원부

김동연 | 현대중공업 CAD개발부

원은희 | 현대일렉트릭 변압기설계부

# 현대중공업그룹 창립 50주년 특별展



도전과 열정의 50년,  
새롭게 열어갈 미래

22. 3. 21 (일) - 4. 24 (일)

현대예술관 미술관

주최·주관  
현대중공업그룹

후원

울산대학교병원  
ULSAN UNIVERSITY HOSPITAL

울산대학교  
UNIVERSITY OF ULSAN

울산과학대학교  
ULSAN COLLEGE

현대학원

울산상공회의소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매거진 H는 사우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룹 웹진입니다. 읽고 난 소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사 혹은 아쉬웠던 점, 소개하고 싶은 재미있는 사연이나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적극 추천해주세요. 보내실 때 소속과 성함을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magazine@hhi.co.kr](mailto:magazine@hhi.co.kr)

HYUNDAI HEAVY INDUSTRIES GROUP

[www.hyundai-holdings.co.kr](http://www.hyundai-holdings.co.kr)

Copyright©Hyundai Heavy Industries Group All Rights Reserved

초대형 유조선  
1·2호선 명명식  
1974년 6월 28일

